

농어촌公 전남본부-농업인 단체장, 재정 위기 타파 '맞손'

관내 6명 '명예본부장 위촉식' 개최
적자 해결 '수상태양광 사업' 제시
"전남 농업 지속가능한 성장 이끌 것"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장과 손을 맞잡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3일 관내 주요 농업인 단체장 6명을 대상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며 농민단체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촉된 명예본부장은 흥영신(한국후계농업인 전남연합회장), 김매숙(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장), 최원섭(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장·전남 농업인단체 연합회 상임대표), 김경민(한국생활개선 전남연합회장), 김무상(한국쌀전업농 전남연합회장), 류진호(한국 4H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최근 관내 주요 농업인 단체장 6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했다.

중앙연합회장) 등 총 6명이다. 행사는 전남의 수자원 관리 현황과 재해대응 체계를 점검을 시작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

남지역본부장은 공사의 현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세를 폐지한 이후로 관련 정부 예산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수리시설 유지관

리비에 발생하는 적자 규모가 매년 2천억원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사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며 버텼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특히 최근 농업인에 대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를 5%에서 25%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역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간 2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공사는 이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지원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제시했다. 공사가 보유한 담수호 및 대형 저수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해 사업시행사·공사·지역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다. 공사는 태양광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사 몫의 수익금을 다시 농업 현장에 투입한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재투자함으로써 발전 수익이 궁극적으로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과 서비스 향상 혜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설명을 들은 농민단체장들은 공사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과 농민을 위한 수수료 면제 등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단체장들은 "재정 적자를 해결하면서도 그 수익이 다시 농업기반시설에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진정성을 느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팜 보급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재식 본부장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청년 농업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은 우리 농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행복 동반자인 명예본부장들과 긴밀히 소통해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AI 도입 성패는 CEO 등 경영진 이해도에 달려"

광주상의 '제288차 광주경제포럼'
중소·중견기업 DX 실전 방향 제시

광주상공회의소는 24일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구 리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지역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8차 광주경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및 빅데이터 전문가인 장동인 AIBBLAB대표를 초청해 'AI 기반 생산성 혁신 및 중소·중견기업DX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장 대표는 강연에서 "AI 도입의 성패는 전문가가 아닌 CEO와 임원의 이해도에 달려 있다"며 "경영진이 직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AI를 이해하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활용해 업무를 개선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투자는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기업이 AI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고립된 AI 프로젝트 운영'과 '현업 부서의 참여 부족'을 제시하며, AI 팀과 현업 부서가 공동의 목표(KPI)를 기반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 인력을 중심으로 AI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는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적인 도입 전략으로, 기술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수용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 구성원이 거부감 없이 즉각적인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오류(Hallucination)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관리 체계 구축과 함

께, 기존 ERP·CRM 시스템과 AI를 연계해 기업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운영체제로 발전시켜야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AI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 중인 광주에서 경영자들이 직접 AI 기술을 실전에 접목하며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실전형 리더십'을 발휘할 때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기업인들이 AI를 실전 경영의 파트너로 삼아 혁신 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제포럼은 1997년부터 지역 경제인들의 지식 교류와 네트워킹을 위해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최신 경제 트렌드를 신속히 전달해 지역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광주경총, 27일 조명진 박사 초청 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7일 유럽 6개국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을 위해 조명진 박사를 초청해 '유럽인의 창의성과 창업 아이디어' 주제로 176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 박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스웨덴 국방연구소, 국방대학교, 본국제군축센터, 독일 국제안보연구원, 외교협회 국제안보 분석담당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 '유로피안 판도라', '하이-휴머니즘' 등을 발간했다. 이번 강연은 ▲독일의 체계적 창의성 ▲프랑스의 시각적 창의성 ▲영국의 대중적 창의성 ▲이탈리아의 고차원적 창의성 ▲스웨덴의 효율적 창의성 ▲창의성과 창업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총은 현재 908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고 국내 최장수 조찬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경제단체로 저명인사 및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CEO와 지역 노사민정,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어 회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개인의 가치·전통·사회문제를 사업 아이템과 연결하는 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생태계의 결합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응용할 포인트는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공동 작업공간·멘토링·규제 개혁 등 생태계를 패키지로 설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박화석 제12대 광주전남기업협의회장 취임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기업협의회는 24일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3층 연회장에서 지역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기업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제12대 신임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성정공주(사진) 대표가 제12대 광주전남기업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제11대 회장을 역임한 ㈜무진서비스 최

은모 대표가 명예회장으로 활동한다. 박화석 회장은 1998년 우성정공주를 설립해 자동차 및 가전 제품 금형과 사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무역의 날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우수자본재개발 유공자 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TI-TC 공법 3중 사출금형을 개발하는 등 첨단 기술 개발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산업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16년에는 석탄산업협장을 수훈하며 우리 지역 대표 기업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날 기업협의회에서는 박화석 회장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주력 수출 업종별 부회장단이 함께 선출됐으며 함께 개최된 제22차 광주전남 CEO포럼에서는 전남대학교 이철우 교수가 AI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광주전남기업협의회는 앞으로 업종별 수출 기업협의회 운영, 광주전남 CEO 포럼,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전수식과 함께 정부·지자체 인사 초청 간담회 등 지역 무역업계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안태호 기자



회장 이·취임식 CEO 포럼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 ☑ 아름다운 자연
- ☑ 365일 관리
- ☑ 가족구성 가능

- ☑ 사용기한 없음
- ☑ 전문 이장
-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